

유식에 '왜' 라고 묻다

정말 쉽게 풀어 본 유식 이야기



유식불교의 이해
목경찬 지음
불광출판사
1만5000원

20여 년 전 한 청년은 궁금했다. '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일까?

청년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말을 약자에게 왜곡될 수 있는 가르침이며, 사회에서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불교학을 시작했고, 유식학을 전공했다.

《유식불교의 이해》는 저자 목경찬 교수가 20여 년 유식학 연구 끝에 얻은 해답을 쉽게, 정말 쉽게 풀어 놓은 책이다. 책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고(一切唯心造), 오직 식번(眞法唯識)임을 밝히는 유식사상을 보통 사람의 상식선에서 설명하고 있다.

유식사상은 유식무경(唯識無境), 즉 오직 식만 있고 대상은 없다는 말로 대표된다.

저자는 "유식무경의 식(識)은 일체유심조의 심(心)과 같은 뜻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는 말이나 '오직 식만 있고 대상은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이라는 설명이다.

"유식무경에서 '없다'는 말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을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답한다.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순간,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덧씌웁니다. 내 생각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 또는 '내가 인식한 대로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본 것이 그대로 있다고 여깁니다."

저자는 "평소 일체유심조나, 유식무경 또는 만법유식 등을 말할 때 나름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마음이 세상 자체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음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럿 있다. '모든 것은 식이 만든다'는 말에서 근본이 되는 식이 바로 제8식이다"라고 설명한다.

제8식 가운데 있는 종자가 현행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기세간(器世間)이라 불리는 것이다.

저자는 "기세간은 나 혼자 펼친 세상이 아니라 세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세간은 혼자가 아닌 이 땅에 있는 모든 유정이



나타낸 세상이라는 설명이다.

저자는 "비록 모든 유정이 나타낸 세상은 각각 다르지만 모습이 서로 비슷해 기세간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많은 촛불이 모여서 방안을 밝힐 때 많은 공간이 하나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더라도 다른 유정들에 의해 기세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비유하면 수많은 촛불이 큰 방안을 밝히고 있다가 촛불 하나가 꺼지더라도 그 방은 여전히 밝은 것과 같이.

보통사람의 상식으로 설명한 유식

영화 '인셉션' '매트릭스'로 설명도

누구나 어려워하는 유식을 너무나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책은 '인셉션' '매트릭스' 같은 영화를 예로 들기도 한다. 꿈을 다룬 '인셉션'을 통해서도 기세간을 설명한다.

특히 '매트릭스'는 저자가 유식 강의마다 강력 추천하는 영화이다. 저자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꿈을 말한다.

"생각해 보자. 꿈에 안팎의 공간이 실제 있는가? 꿈이 아닌 현실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8식이 펼쳐 마음의 공간 속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며 산다."

저자는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유식사상을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호기심으로 잠시 다가왔다가 오래지 않아 떠나버립니다. 유식사상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교교리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어려운 이유는 사고의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자는 매사에 의문을 갖고 대하기를 강조한다. 그 의문이 결국 부처님 가르침으로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뗏목이 될 것이라는 조언과 함께.

조동섭 기자

서재탐방 | 이민용 한국불교연구원장

'영원회귀의 신화' 읽고 불교에 매료

1960~1970년 당시 한국불교는 기복·의례중심, 부녀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처럼 흔하게 불교기초교리,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 근대적인 학문의 틀이 서구 주도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때라 불교의 불모지라 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

이때 실천불교·지성불교를 표방하며 재가불교의 중심점 역할을 자임한 한국불교연구원이 설립됐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민용)은 원호 연구의 최고 권위자였던 이기영 박사(1922~1996), 인도불교철학을 대중화시킨 서경수 박사(1925~1986), 한국불교미술사 석학인 장충식 교수(1941~2005), 정병조 현 금강대 총장, 이민용 현 원장이 주축이 돼 1974년 설립됐다.

연구원은 '공동연구·공동수련·공동참여'를 슬로건으로 한국불교 연구자료를 거의 없던 시대에 《한국의 사찰》(초20권), 《삼국유사 색인본》 등 출판물을 발간해 일반인들의 한국불교 이해를 도왔다. 또 구도회를 결성해 재가불자의 올바른 신행활동을 이끌어 왔다.

한국불교연구원 이민용 원장(71·사진)은 고령임에도 정기적으로 불교강의를 하고 언론사에 칼럼을 쓰고 있다. 또 여러 학회에서 '서구불교운동의 전개와 서구적 불교의 탄생'과 '미국의 일본 불교 수용의 굴절' 등을 발표해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불교연구원의 설립 주축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인 이민용 원장의 이력과 활동이 교계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애틀랜타와 보스턴에서 30년간 사업을 하던 그가 한국에 온지는 7~8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민용 원장은 "학자로서 정형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내 삶은 학자이기 보다 추구자(seeker)였다"며 "때문에 아직 학문현장에서 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용 원장은 "학자로서 정형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내 삶은 학자이기 보다 추구자(seeker)였다"며 "때문에 아직 학문현장에서 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용 원장은 "학자로서 정형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내 삶은 학자이기 보다 추구자(seeker)였다"며 "때문에 아직 학문현장에서 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용 원장은 "학자로서 정형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내 삶은 학자이기 보다 추구자(seeker)였다"며 "때문에 아직 학문현장에서 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용 원장은 "학자로서 정형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내 삶은 학자이기 보다 추구자(seeker)였다"며 "때문에 아직 학문현장에서 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용 원장은 "학자로서 정형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내 삶은 학자이기 보다 추구자(seeker)였다"며 "때문에 아직 학문현장에서 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용 원장은 "학자로서 정형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내 삶은 학자이기 보다 추구자(seeker)였다"며 "때문에 아직 학문현장에서 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용 원장은 "학자로서 정형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내 삶은 학자이기 보다 추구자(seeker)였다"며 "때문에 아직 학문현장에서 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이민용 한국불교연구원장은 칼럼과 강의를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기영 교수 권유 인도사상사 석·박사 마쳐 '조선불교통사' 쓴 이능화 평전 쓰고

사상사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그는 이기영 교수의 스승인 벨기에 불교학자 에피엔느 라모프의 《인도불교사(1958)》와 외젠느 부르누프의 《인도불교학 입문》을 읽고 '동양학은 프랑스에서 발달을 두고 근대 불교학은 그곳을 기점으로 전개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민용 원장은 "외젠느 부르누프의 《인도불교학 입문》이 불교학 연구의 선구적 개론서이지만 아직도 이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학계의 현실이다. 이것이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불교는 동양 현장의 종교인데, 그 학문적 근거는 서양이 됐다"며 "학문상의 화두를 얻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원장은 1970년대 동국대 등에서 불교인도철학을 가르치는 시간강사 생활을 10년간 했다. 이 원장은 아내의 권유로 학문을 모두 접고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편의점 매니저를 시작한 그는 옷장사와 잡화상을 거쳐 애틀랜타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패션·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명석한 두뇌와 사업수완이 좋은 탓이었다.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생긴 그는 애틀랜타의 애모리대학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었다. 서가의 분위기와 책 냄새는 그로 하여금 한국에서 공부하던 때를 생각나게 했다. 미국에 정착한지 10여 년이 지났을 때였다.

이 원장은 1986년 하버드대 동아시아언어문명학과에서 불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때 보스턴에 머물면서 이 원장은 다이아몬드 킬러로 일했다. 그래서 그는 "내 인생은 《금강경》으로 전공을 시작해 금강석을 전공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는 농담을 가끔한다.

이민용 원장은 "마주생활 30년 후 나는 사업가로 자리를 잡았고 그 사이 여가시간을 이용해 책을 볼 들었다.

불교학이있기에 복약이 가능했"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시 시작된 불교는 내 자신의 참여와 성찰이었다. 불교학은 서구가 규정하는 학문체계가 아니다. 세계불교학회장을 지낸 어떤 양심적인 분은 불교를 결국 '삶의 양식(A Way of Life)'라고 실도한다. 불교학 발생의 계기부터가 잘못된 오리엔탈리즘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어서 "불교는 그런 서구적 틀의 개종이나 기독교적 변신론, 혹은 학문 분류 방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교는 학자의 책상 위에 존재하고 박물관의 진열품으로 전시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불교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직을 맡았다.

잡식형 독서가인 이민용 원장은 《오 자이르》(연금술사) 등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들도 좋아한다. 이 원장은 "코엘료는 개인적 고난을 정신적인 세계로 승화시켜 작품에 담고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상문학작품집》은 매해 사서 본다는 이 원장은 젊은 세대들의 행태를 볼 수 있는 《달콤한 나의 도시》(아내가 결혼했다) 등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요세는 아마존 e-북 리더인 킨들로 루 살로메의 《릴케》와 찰스 김벌의 《종교가 사악해질 때》 등을 읽고 있다.

이민용 원장은 《조선불교통사》를 저술한 불교학자 이능화에 대한 평전을 쓰고 싶다고 밝혔다. 《조선불교통사》를 통해 불교를 근대속에서 풀어갔으면 하는 뜻에서다.

글=이아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4~3/2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개달음	법륜	정토출판
2	친절한 간화선	월암	담앤북스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인	샘앤파커스
5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1	원택	글심미디어
6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사이토 니루와 외	운주사
7	미음수업	이광정	휴
8	문둔한 친구	장휘옥, 김사연	민족사
9	문,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	데이비드 로이	불광출판사
10	행복을 가져오는 붓다의 말씀	안양규	도피만사

* 불서총편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월든(Walden)

1CD / 켄 페더슨 / 콘텐츠코리아

대자연의 예찬과 문명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긴 불멸의 고전 <월든>을 품은 음악!

법정 스님께서 생전에 애독하시고 <무소유> 삶의 원천이 된 소로우의 에세이집 <월든>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은 자연주의 릴렉싱 피아노 연주음악으로 올해 <소로우 서거 150주년>과 <법정 스님 입적 2주기>를 맞이하여 발매되는 켄 페더슨의 앨범이다.

<월든>으로부터 느낀 음악적 선율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온갖 스트레스로 찌든 현대인들에게 삶의 정확수가 되어 줄 것이다. <월든>에서 싹튼 소로우의 사상이 법정 스님을 거쳐 여러분들에게로 깊은 인연이 닿았을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복(至福)의 순간

1CD / 아니 초잉 돌마 / 콘텐츠코리아

찬불가를 노래하는 네팔의 비구니 스님 <아니 초잉 돌마>의 베스트 명반!

아니 초잉 돌마(Ani Choying Drolma)는 네팔의 나기 고평 사원의 스님으로 '자비심이 울려 나오는 천상의 목소리로 관세음보살이 현현한 듯 하다' 라는 평가와 함께 네팔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팬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찬불가와 만트라 등을 노래한 총 9곡이 수록되어 있는 이 앨범은 자신의 몸을 사르는 촛불같이 천상의 목소리로 지혜와 자비의 불을 밝히고 우리들을 '더 없는 지복(至福)의 순간(Moments of Bliss)'으로 데려다 준다.